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유 영 준*

본 연구는 1998년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경주지역의 기존 관광코스인 경우 경주시내의 사적지 관광에만 국한하였고, 경주시에서 설정한 6개 관광권의 경우에 기존의 관광루트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관광권(동해안권·북부문화권)이 있어 새로운 관광코스의 개발이 절실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6개 관광권을 묶어 '테마가 있는 문화 엑스포 관광'이라는 주제로 관광상품을 계획하였다. 경주시내권·서악권·불국사권을 묶어 '신라 유적 답사', 보문단지권은 '새 천년의 미소와 함께', 남산권은 '남산 불교 박물관 견학', 동해안권과 북부문화권을 묶어 '자연과 문화의 조화'라는 테마가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

主要語 : 관광상품,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테마가 있는 문화 엑스포 관광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 확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관광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며, 투자가 있더라도 우선 순위가 오히려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UNESCO가 세계 10대 유적지 중의 하나로 선정한 경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206점, 도 지정 문화재 51점, 문화재 자료 37점, 비지정 문화재 111점 등으로 총 405점의 문화재가 있어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98년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계 문화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유를 보면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신라의 고도였던 이 지역의 남아 있는 유서 깊은 사적들을 보호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조장하고 정서생활 및 보건 휴양에 기여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주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로, 신라 고도의 재건, 민족문화 전통의 구현, 주민소득 증대 및 국제문화 중심지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경주와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김병문, 1996).

그런데 현재 경주시에서 구분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관광권은 불국사권, 보문단지권, 경주시내권, 남산권, 서악권, 북부문화권, 동해안권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런 권역 구분은 관광권역의 연계를 통한 경주시내 관광루트를 설정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여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경주시내 관광객의 유입과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의 분포 등을 살펴보고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광객은 경상북도 도청과 경북관광협회의 1997년 자료를 통해 관광지역별 관광객 수와 월별 관광객 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경주지역의 문화적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의

* 경주대학교 초빙교수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공간 분포를 확인하였는데, 문화적 관광자원은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비지정 문화재 등으로 구분하였고, 관광사업체는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국민호텔업·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식당업)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관광자원과 그렇지 못한 관광자원을 적절하게 연결시킴으로써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로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의 다수의 보고서, 한국관광협회의 「관광사업체명부」, 경북도청의 「경북통계연보」, 경북도청·경북관광협회의 관광통계자료, 경주시의 「통계연보」 등이 있다. 또한 기존 코스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주) 천마관광의 순회관광버스를 이용하기도 했고, 연구자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수시로 권역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배경

높은 교육수준,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수단의 발달, 국민소득증대 등의 이유로 사람들은 여행이 가능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주저 없이 여행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국민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하면 여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행상품을 제작하여 여행시장에 내놓음으로서 여행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이정훈, 1995).

여행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신상품의 개발은 새로운 여행 목적지나 여행조건 변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아이디어 연구를 통하여 상품화 계획에 따라 상품을 기획하게 된다. 이런 상품기획의 동기가 되는 정보의 입수 경로는 ① 타 여행사의 상품, ② 여행 목적지의 현지 여행사의 제안, ③ 항공사의 Inter-line Tour, ④ NTO(National Tourist Organization) ⑤ 독자적인 연구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 '독자적인 연구'란 여행전문잡지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여행 목적지나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가는 유명 관광지를 직접 여행하여 답사한 후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들며 상품 개발의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지 못하는 방법이다.

고객관리방법의 하나로 여행을 실시한 후 여행자들에게 여행에 대한 소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보내는 앙케이트 응답 편지에서 추출한 고객의 여행 희망지에 따라 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다(임현국, 1997). 또한 산·학 연계를 통해 학계에서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여행사에서는 이것의 상품성을 검증한 후 새로운 상품으로 소개하는 방안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관광목적지에 대해 관광객이 갖는 이미지는 심리적인 영상으로서 여행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관광상품의 발굴과 함께 개발된 상품을 홍보하는데, 특정 관광지의 이미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그 동안은 보는 관광에만 치중하여 종합적인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이태희, 1998). 이에 따라 98년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해지는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2. 경주지역의 관광 현황 분석

1) 관광객 현황

1997년 한 해 동안 경주를 찾아온 관광객 수는 14,149,044명이며, 이는 경북지역을 찾아온 관광객 전체에서 40.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중 내국인이 13,501,107명(경북지역 관광객의 39.0%), 외국인인 647,937명이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경북지역 전체 관광객의 90.4%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관광지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주 내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곳은 보문단지로 경주지역 관광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불국사와 경주국립박

표 1. 경주지역 관광지와 방문객, 1997

(단위 : 명, %)

관광지	관광객 수			경주내 비중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불국사	1,938,156	146,661	2,084,817	14.4	22.6	14.7
석굴암	1,004,110	64,942	1,069,052	7.4	10.0	7.6
대릉원	464,560	21,869	486,429	3.4	3.4	3.4
임해전지	212,045	3,951	215,996	1.6	0.6	1.5
무열왕릉	166,355	3,474	169,829	1.2	0.5	1.2
포석정	277,831	4,736	282,567	2.1	0.7	2.0
김유신장군묘	147,659	3,232	150,867	1.1	0.5	1.1
오릉	59,320	999	60,319	0.4	0.2	0.4
첨성대	198,737	6,902	205,639	1.5	1.1	1.5
계림	59,168	858	60,026	0.4	0.1	0.4
분황사	204,433	5,482	209,915	1.5	0.8	1.5
박물관	1,727,232	134,533	1,861,765	12.8	20.0	13.2
통일전	112,425	101	112,526	0.8	0.0	0.8
보문단지	6,434,637	247,036	6,681,673	47.7	38.1	47.2
기림사	190,588	466	191,054	1.4	0.1	1.4
문무대왕릉	185,709	512	186,221	1.4	0.1	1.3
남산	118,142	2,183	120,325	0.9	0.3	0.9
계	13,501,107	647,937	14,149,044	100.0	100.0	100.0
경북 관광객	34,598,388	716,811	35,315,199			
경북 내 비중	39.0	90.4	40.1			

자료 : 경상북도·경북관광협회(1998) 97 관광객 이동 현황.

그림 1. 경주지역 방문객의 월별 변화

물관이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석굴암에도 1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주 내에 있는 관광지 17개소 중 한 해 동안 10만 명도 찾지 않은 오릉과

계림의 경우에는 방문객 유치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17개소 이외에도 경주에는 많은 유적지들이 있어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경상북도와 경주의 관광통계에서는 제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외되고 있다. 이 점은 관광객들의 추이를 살펴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크나 큰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주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4월(22.6%)과 5월(17.8%)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가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시기이고 4월의 경우에는 경주 보문단지과 김유신장군묘 주변에 만개하는 벚꽃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관광객이 많은 때문으로 판단되며, 7월(7.9%)과 8월(9.1%)의 방학 기간도 다른 때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4월과 5월에 많이 찾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8~10월에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휴가철과 한국의 가을 풍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2. 경주지역의 내국인 방문객, 1997 (단위 : 명)

월 별	내 국 인 방 문 객		
	일 반	학 생	계
1	301,368	140,882	442,250
2	240,020	127,860	367,880
3	295,438	177,986	473,424
4	1,172,326	756,707	1,929,033
5	813,128	696,122	1,509,250
6	339,639	227,328	566,967
7	426,180	228,099	654,279
8	435,815	299,963	735,778
9	311,276	197,525	508,801
10	287,388	246,110	533,498
11	186,785	137,994	324,779
12	133,597	104,476	238,073
1997년	4,942,960	3,341,052	8,284,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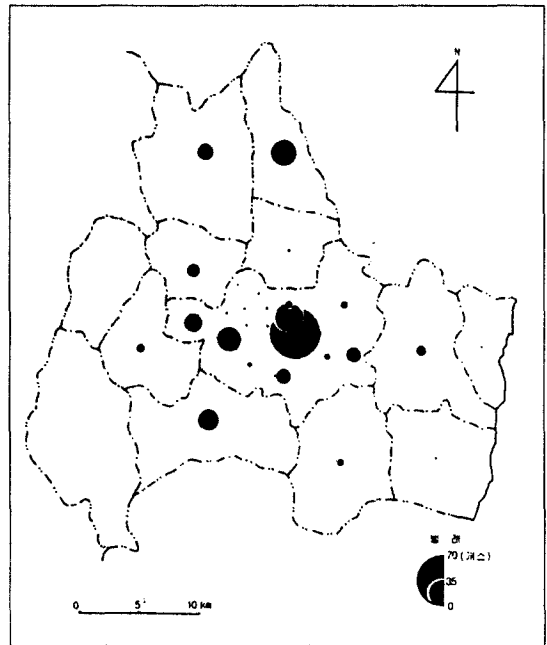
자료 : 경북관광협회(1998)

2)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

'문화적 관광자원(cultural tourism resources)'은 보통 이를 문화재자원(cultural assets resources)과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문화재자원은 역사상·예술상의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한편 1964년 UNESCO에서 제안한 문화재의 종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역사·미술·건축·고고학 및 민족학 상의 동산·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들 문화적 유산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 유산도 포함되며,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인 예능이나 공예기술과 같은 무형의 유산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역사적 기념물에 대하여 천연기념물을, 사적에 대하여 명승을, 유형문화재에 대하여 무형문화재를 각각 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존엄성과 신빙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성의 발로라 말할 수 있다(김홍운·김사영, 1996). 현재 우리 나라의 지정문화재는 1,200여 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경주에는 총 294점에 달하는 지정문화재와 111점의 비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이를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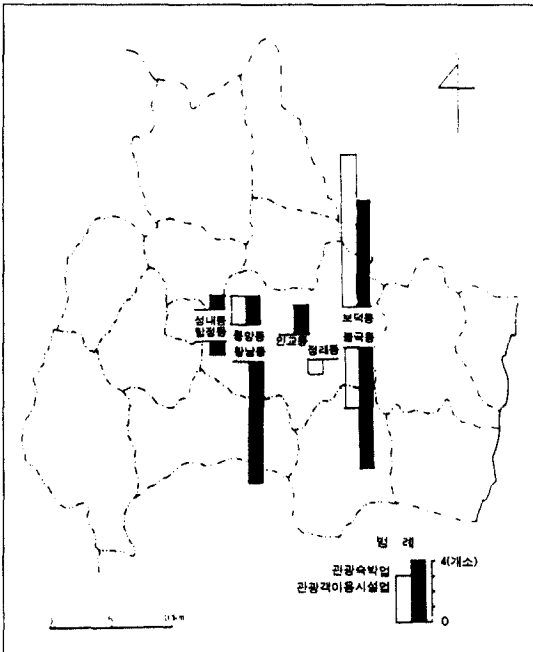


자료 : 경주시, 1997, 경주통계연보.

그림 2. 경주지역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

경주지역 중에서 문화적 관광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경주시내이며, 그 중에서도 경주국립박물관·첨성대·안압지·계림 등이 있는 인교동(16.8%)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분황사가 있는 보황동(9.4%), 오름이 있는 탑정동(8.1%), 무열왕릉과 김유신장군묘가 있는 선도동(5.9%), 남산의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는 내남면(6.9%)과 도동동(4.9%) 등에도 다수의 문화적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산내면과 서면은 문화적 관광자원이 전무한 지역이다.

〈표 1〉과 〈그림 2〉를 통해 볼 때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 비중이 높은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주지역에서는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관광객의 집중간에 상관관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발되어 있고 관광객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 관광지를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 한국관광협회, 1996; 경북관광협회, 1998

그림 3. 경주지역 관광사업체의 분포 현황

3. 관광사업체의 분포

1) 관광숙박업

한국관광협회·경북관광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숙박업체는 총 16개소이며, 관광호텔이 11개소로 가장 많고, 국민호텔이 2개소, 가족호텔이 1개소, 휴양콘도가 3개소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동에 있는 관광호텔 2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14개소가 모두 보문단지와 불국사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관광숙박업체의 집중 분포가 관광객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술한 바와 같이 보문단지와 불국사 지역으로의 관광객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관광객이용 시설업

경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객이용 시설업 중 종합 휴양장은 경주월드만이 보문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관광음식점은 대릉원이 있는 황남동에 3개소, 보문단지가 있는 보덕동에 3개소, 성내동·중앙동·인교동에 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다. 관광기념품점은 불국사가 위치한 불국동에 가장 많은 7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황남동에 2개소, 성건동과 인교동에 각 1개소, 그리고 보덕동에 1개소가 분포하여 불국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관광 편의시설은 황남동에 3개소, 보덕동에 2개소, 중앙동과 불국동에 각각 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대릉원, 불국사, 보문단지와 같은 인기 있는 관광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주지역 관광상품의 개발

1) 기존의 관광코스

경주 문화 엑스포의 홈페이지(<http://www.cultureexpo.or.kr>)와 한국관광공사(1996)에서 제시한 경주 관광코스는 사적지관광, 5시간 20분 관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광, 1일 관광, 2일 관광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적지관광은 천마관광(주)에서 주최하고 있다. 현재 경주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천마관광(주)에서 경주시내의 '사적지를 관광'하는 순회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2회(08:30, 10:00 출발) 운행하며 비용은 10,000원이다. 경주를 순회하는 소요시간은 7시간이며, 운행코스를 보면 터미널을 출발하여 보문관광단지(경주)→불국사→민속공예촌→분황사→박물관→임해전지→침성대→천마총→포석정→김유신장군묘를 지나 터미널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한편 '5시간 20분 관광'의 경우에는 터미널을 출발하여 보문관광단지→민속공예촌→불국사→분황사→박물관→임해전지→반월성→침성대→계림→대릉원→포석정→오릉→김유신장군묘→무열왕릉을 지나 터미널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1일 관광'의 경우에는 터미널이나 경주 역에서 출발하여 보문관광단지→민속공예촌→불국사→석굴암→통일전→박물관→임해전지→반월성→계림→침성대→대릉원→무열왕릉→김유신장군묘→오릉→포석정→배리석불입상→삼릉→분황사→황룡사지를 돌아오는 코스이다. '2일 관광'은 보문관광단지에서 1박한 후 보문관광단지를 출발하여 민속공예촌→석굴암→불국사→괘릉→방형분→통일전→화랑교육원→황룡사지→분황사→백룡사→용담정→김유신장군동상→박물관→임해전지→반월성→계림→침성대→대릉원→삼릉→배리석불입상→포석정→오릉→무열왕릉→김유신장군묘를 돌아 터미널이나 경주 역을 이용하여 돌아가는 코스이다.

그러나 전술한 코스들은 모두 경주시내지역에 있는 문화적 관광지를 연결한 코스여서, 기림사·문무대왕릉·이전대·감은사를 연결하는 동해안 코스, 양동마을이 있는 북부문화권 등이 제외되어 경주의 모든 문화를 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존 관광코스가 일부 관광지로의 관광객 집중 현상을 초래한 요인이다.

2) 경주 관광권 구분의 문제점

현재 경주에서 구분하고 있는 6개 권역(북부문화권·경주시내권·서악권·보문단지권·불국사권·남산권·동해안권)의 관광권 중에서 가장 관광

객이 많이 찾는 관광권은 '보문단지권'과 '불국사권'이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이런 권역 구분은 권역을 구분할 때부터 문제점을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관광권 구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국사권·보문단지권·경주시내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관광권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술한 기존 관광코스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기림사와 문무대왕릉·감은사가 있는 동해안권과 양동마을·옥산서원으로 유명한 북부문화권의 경우 어느 곳도 현행 관광코스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기존 관광코스가 유적지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적지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중 수학여행을 통해 관람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태희(19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주가 다양한 관광 매력을 지닌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주의 6개 관광권은 각 관광권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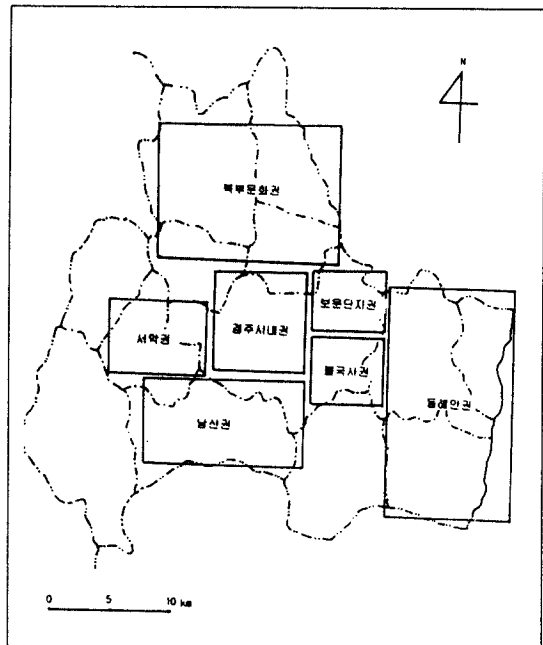


그림 4. 경주지역의 관광권 구분

수 있는 코스의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6개 관광권을 묶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주시내권·서악권·불국사권을 묶어 '신라 유적 답사', 보문단지권은 '엑스포 관람'으로, 남산권은 '남산 불교 박물관 견학', 동해안권과 북부 문화권을 묶어 '자연과 문화의 조화'라는 테마가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

3) 테마가 있는 문화 엑스포 관람

단순히 엑스포를 목적으로 한 관광객의 경우에도 엑스포를 참관하는 날 이외의 활동으로 경주의 다른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제시해 줌으로써 엑스포의 주제 '새 천년의 미소'를 살릴 수 있는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다(표 3 참조). 또한 기존 관광루트의 경우 경주 시내의 사적지 관광이 주를 이루었으나 경주에는 이견대가 있는 갑포읍, 문무왕릉·감은사·기림사가 있는 양북면, 나아해수욕장·관성해수욕장이 있는 양남면,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으로 유명한 안강읍, 숯불구이로 유명한 산내면 등을 연결한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불거리와 먹거리를 모두 겸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된다. 그리고 본 관광상품은 내국인 관광객 중 가족 동반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한다.

표 3. 테마가 있는 '98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관람

일 차	관 광 내 용	주 제	비 고
1일차	경주 시내 관광	신라 유적 답사	석식 산내
2일차	엑스포 관람	새 천년의 미소와 함께	보문단지 숙박
3일차	남산 유적 답사	남산 불교 박물관 견학	경주지역 온천 숙박
4일차	동해안·북부문화권 관광	자연과 문화의 조화	

1) 신라 유적 답사

신라 유적 답사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기차를 이용해서 경주에 도착하는 관광객,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코스의 출발은 터미널(경주 역 광장)로 하여 박물관→반월성→첨성대→계림→대릉원(중식 경주 찜밥)→분황사→석굴암→불국사→김유신장군묘→무열왕릉을 보고 금척리 고분군을 지나 산내에서 석식

을 한 뒤 보문관광단지에서 숙박하도록 한다.

2) 새 천년의 미소와 함께

'새 천년의 미소'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세계 문화 엑스포는 국가의 날·경주축제·국민화합대축제·국제학술회의·야외조각 심포지엄 등과 같은 행사, 인류화합 음악제·세계 민속 공연·천년 고도 퍼레이드·세계 꼭두극 축제·거리 공연·민속 잔치 등과 같은 공연, 세계 문명관·세계품물광장·우정관 등의 전시, 새 천년의 미소관·Pre-Show·Main-Show 등의 영상 등이 어우러져 우리 나라의 문화와 세계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3) 남산 불교 박물관 견학

경주 도심 남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거북 모양으로 누워 있는 산, 산 전체가 국보급 보물로 가득한 야외박물관이다. 계곡과 능선마다 절터 127곳, 불상 87체, 석탑 71개가 즐비한 곳이다. 그래서 남산을 보지 않고 신라 유적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전해 올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남산을 잘 찾지 않고 있다.

석불 순례를 겸한 남산의 등산코스는 크게 7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 6코스는 대개 5시간 미만 이 소요되는 짧은 코스로 등산을 겸할 수 있는 좋은 코스이다.

① 삼릉→냉골→상선암→금오산→정상→칠불암으로 이어지는 코스. 총 12Km로, 약 5시간이 소요된다.

② 삼릉→상선암→금오산→용장사지→용장마을로 이어지는 코스. 총 5.5Km이다. 약 4시간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정도 소요된다.

③ 통일전→ 칠불암→ 천룡사지→ 틈수골마을로 하산하는 코스, 총 7.5Km로 약 6시간 소요된다.

④ 통일전→ 남산부석→ 금오산→ 약수골로 이어지는 코스, 총 5Km로 약 5시간 정도 소요된다.

⑤ 통일전→ 전망대→ 장창지→ 일성왕릉→ 창림사지→ 나정으로 이어지는 코스, 총 7.5Km 약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⑥ 보리사→ 장창지→ 전망대→ 부총사→ 포석정으로 이어지는 코스, 총 7.8Km로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⑦ 용장마을→ 용장골→ 고위산→ 백운암→ 관음사→ 용장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 총 7.8 Km로 약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 밖에 남산을 등반하는 코스를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총 26개나 된다. 냉골에서 금오산을 거쳐 남산동으로 하산할 경우 식수가 있는 곳은 상선암과 칠불암 뿐이므로 여름철에는 식수를 잊지 말고 챙겨오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각 코스마다 길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자연과 문화의 조화

추령고개를 넘어 동해바다로 나서면 하늘 끝과 맞닿은 수평선이 펼쳐지고 옛 신라인들의 장엄한 기운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추령고개를 넘어 처음 만나는 곳은 토함산 자연휴양림이고, 이곳을 지나면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한 기림사, 죽어서도 동해를 지키겠다고 유언에 따라 문무왕을 수장한 세계 유일의 수증통인 문무대왕릉, 동서로 마주한 3층 석탑이 있는 감은사 터가 있다. 감은사는 문무대왕의 공에 감사하기 위해 지은 절이라고 한다. 중식은 값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감포에서 회를 곁들여 식사하면 된다. 이 유적들을 돌아보고 시원한 동해안의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 안강읍으로 가면 경주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교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양동마을, 옥산서원, 독락당 등 유교 문화의 전통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표 3>을 참조하여 엑스포에 참가하는 경우 당일 여행이라면 엑스포만 참관하고 귀가하게 되지만, 1박 2일인 경우에는 1·2일차, 2·3일차, 2·4일차 중 선택하게 되고, 2박 3일인 경우에는 1~3일차, 2~4일차, 1·2·4일차 중 택 1 할 수 있으며, 3박 4일인 경우에는 4일차까지 모두 돌아보는 관광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관광객 스스로가 <표 3>에서 제시한 일차의 순서를 바꾸어서 관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에 따라 수정 가능한 상품이다.

5. 결론

관광은 정보매체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여가의 의미의 이해, 관련산업의 발전 등을 통하여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정신적 만족을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안정된 개인을 통하여 안정되고 발전 지향적인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자연스러운 관광에 대한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 내지 만족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관광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지닌 관광을 결정하여 행동에 옮기는 관광객이 보다 최소의 시간을 할애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관광지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사나 인터넷을 통해 가고자 하는 관광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은 관광객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관광루트를 제공하는 것이 여행사나 여행정보 사이트의 책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8년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에 대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지인 경주(경북 관광객의 40.1%)는 4월(22.6%)과 5월(17.8%)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으며, 관광객 수가 측정되고 있는 17개소의 관광지 중에는 1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불국사·석굴

암·경주국립박물관)가 있는 반면에 10만 명도 찾지 않는 관광지(오릉·계림)가 있어 방문객 유치에 위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주지역에 분포한 문화적 관광자원은 경주시내의 인교동(16.8%)·보황동(9.4%)·탑정동(8.1%) 및 남산지구(내남면 6.9%, 도동동 4.9%)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셋째, 경주지역의 관광사업체가 일부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관광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관광숙박업체의 경우 보문단지과 불국사 지역에 88%가 집중되었고,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경우도 대통령·불국사·보문단지와 같은 인기 있는 관광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기존 관광코스의 경우 경주시내의 사적지 관광에만 국한하였고, 경주시에서 설정한 6개 관광권의 경우에 기존 관광코스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관광권(동해안권·북부문화권)이 있어 새로운 관광코스의 개발이 절실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6개 관광권을 묶어 '테마가 있는 문화 엑스포 관람'이라는 주제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다. 경주시내권·서악권·불국사권을 묶어 '신라 유적 답사', 보문단지권은 '새 천년의 미소와 함께', 남산권은 '남산 불교 박물관 견학', 동해안권과 북부문화권을 묶어 '자연과 문화의 조화'라는 테마가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2년마다 개최되는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를 상품화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외에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보완하고자 한다.

文 獻

경북관광협회, 1998, **회원명부**,
경상북도, 1997, **통계연보**.

경상북도·경북관광협회, 1998, **'97 관광객 이동 현황**.

경주시, 1997, **경주통계연보**.

김병문, 1996, **관광자원학**, 백산출판사, 서울.

김성혁, 1997, **관광사업론**, 백산출판사, 서울.

김홍운·김사영, 1996,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서울.

산업연구원, 1997, **한국관광산업의 장기발전전략**.

유영준, 1993, 관광관련산업의 공간 분포 연구, **관광지리학**, 3, 129~147.

이정훈, 1995, **여행사경영론**, 형설출판사, 서울.

이태희, 1998, 관광목적지로서 경주의 이미지 홍보 전략에 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창간호, 165~206.

임은순, 1996, **관광조사분석론**, 형설출판사, 서울.

임헌국, 1997, **여행사경영론**, 기문사, 서울.

조문식, 1990, 경주지역의 관광교통이용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현국·강태구·조문식·임영목, 1991, 경주국립공원의 관광지 경관 선호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5, 225~232.

한국관광공사, 1992, **한국관광코스 - 여행사 관광코스 개발용**.

한국관광공사, 1993, **관광인식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한국관광공사, 1993, **한국여행상품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관광공사, 1994, **1993 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1996, **한국 문화유산 관광상품화방안**.

한국관광협회, 1996, 관광사업체명부.

<http://www.cultureexpo.or.kr>

<http://www.kyongbuktour.or.kr>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our Commodities for '98 Kyongju World Culture Exposition

Young - Jun, You*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new tour routes for '98 Kyongju World Culture Expos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over 40% of tourists from Kyongsangbuk-do Province vote for Kyongju Area as the most favorite tourist-oriented city in this province. And they are visiting Kyongju mostly in April(22.6%) and in May(17.8%).

Second, cultural assets in Kyongju area are located at Inkyo-dong(16.8%), at Bohwang-dong(9.4%), at Topjong-dong(8.1%), at Mt. Namsan area(11.8%, 6.9% for Naenam-myon, and 4.9% for Dodong-dong), and at the vicinity of Kyongju City(53.9%).

Third, tourism enterprises in Kyongju Area are located mostly at one place - Pomun Lake Resort area. This fact have had bad influence on the influx of tourists.

Lastly, current tour routes are limited mostly to the heart of Kyongju City. So, other attractive tour routes must be developed also in other tourism circles such

as the East Sea Tourism Circle and the Northern Province Tourism Circle, which belong to the 6 tourism circles designated by Kyongju City but are now excluded from the current tour rout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98 Kyongju World Culture Exposition with Themes" related to the 6 tourism circles. The themes proposed are as follows:

① The exploration of the historical places of the Shilla Kingdom in the heart of Kyongju City including Mt. Seoak area and Pulkuksa Temple area.

② Smile with a new millenium in Pomun Lake Resort area.

③ The exploration of the Buddhist culture in Mt. Namsan.

④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culture in the East Sea Tourism Circle and the Northern Culture Circle.

Key Words : Tour Commodities, 98 Kyongju World Culture Exposition with Themes

* Visiting Professor, Kyongju University.